



# 改革主義 基督教哲學의 必要性

## 〈 목 차 〉

- |                |                   |
|----------------|-------------------|
| I. 問題點         | V. 哲學과 日常 經驗      |
| II. 哲學과 宗教     | VI. 哲學의 出發點과 그 方向 |
| III. 哲學과 一般 信者 | VII. 哲學과 實在의 意義性格 |
| IV. 哲學과 聖經     | VIII. 哲學에 있어서의 反位 |

## I. 問題點

哲學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哲學이란 말은 두 가지 意味로 使用되고 있다. 첫째는, 플라톤(P'laton)이나 칸트(Kant)의 哲學에 있어서와 같이 그들의 哲學的 體系를 뜻하는데 그들은 이미 오래 전에 죽었고 그들의 哲學的 活動도 由止되었지만 그들의 哲學體系는 지금도 存在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哲學的 活動이나 哲學하는 行爲를 意味하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現世의 生에 局限된 人間 活動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이 둘째 意味의 哲學에 있어서 哲學者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제, 哲學한다는 것의 참된 뜻을 물어 본다면 哲學한다는 것은 어떠한 일에 從事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먹는 일이라든가, 자는 일을 가리켜 哲學하는 일이라고는 하지 않으며, 비록 裁斷師가 옷을 만드는 行爲가 생각하는 行爲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 哲學하는 行爲는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哲學的으로 活動한다는 것은 어떠한 特別한 形態의 科學的인 思索에 從事하는 것을 意味한다.

이런 意味에서 우리들은 哲學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앞서 科學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對答해야 할 것이다. 科學이나 哲學은 어떤 特殊한 形態의 認識 活動이며, 科學的으로 思考한다는 것은 分析的으로 思考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科學的 活動은 分析的인 活動인 동시에 對照的이며, 組織的인 思考의 活動



인 것이다. 이와 같은 科學의 定義를 理解하기 위해서는 먼저 日  
常的 思考의 差異를 對照해 보아야 한다. 이를 테면 우리들의 日  
常經驗에서 아름다운 卓子 하나를 觀察할 때에 보통 그것의 形態  
에 關해서는 無批判的으로 생각한다. 우리의 마음은 보통 無意識  
的으로 한 領域에서 다른 領域으로 轉轉하면서 思考의 學象을 實  
際的으로 經驗하게 된다. 그러나 科學者는 同一한 客體를 가지고  
도 여러 局面에서 銳利하게 分析하며 試驗한다. 그는 卓子の 크  
기, 무게, 연운, 형태, 나무의 種類 등을 細密히 觀察하는가 하  
면 한 가지 事物에 對해서도 여러 局面으로 나누어서 分析한다.

예를 들면, 物理學者나 化學者는 그 卓子를 構成하고 있는 物  
質의 形態와 性質에 關心을 가지는가 하면 藝術史學家는 오직 그  
時代相에 關與한다. 그러므로 科學的 思考란 識別的이며, 分析  
的인 同時에 對蹠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들의 日常的인 素朴한  
經驗에 있어서 우리들은 생 그 自體를 全體的으로 完全하고 充足  
한 것으로 認定하는 反面에, 科學에 있어서는 우리들 自身과 研  
究對象 사이에 懸隔한 差異가 있는 것으로 본다. 科學者는 그의  
思考가 未熟한 狀態로 徘徊하는 것을 容納하지 않는다. 다시 말  
하면, 科學者는 어떠한 局面이 곧장 다른 어떤 局面으로 看過하  
는 것을 願치 않는다. 왜냐 하면, 科學者는 어떠한 일이든지 여  
러 局面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科學者의 試驗은 論理的  
이며, 組織的인 試驗인 동시에, 科學者는 그 探究의 領域을 完全  
히 試驗하기까지는 滿足하지 않는다. 哲學도 하나의 科學이다.  
그것은 組織的인 同時에 分析的이며 對蹠的이기 때문이다. 우리  
들이 보통 科學이라고 부르는 各分科는 實在의 한 特殊한 局面을  
探究하고 있다. 예를 들면 法學, 社會學, 歷史學, 自然 科學 등  
의 서로 다른 것은 그들의 研究 分野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歷史家와 自然 科學者는 實在의 各異한 局面을 探究한  
다.

그러면 哲學者가 研究하는 實在의 局面은 어떠한 것일까? 哲  
學者는 그의 科學的 認識 活動을 어떠한 한 局面에만 集中시키지



않고 被造된 實在 全體를 包括的으로 取扱한다. 그러므로 哲學者는 哲學을 어떠한 局面에만 고립시켜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哲學者의 研究分野는 宇宙 全體인 것이다".

이와 같이 哲學은 全體性에 關한 見解를 얻으려고 探索하지만, 特殊科學은 實在의 한 局面만을 取扱한다.

그러므로 哲學은 그 性格上 궁극적이며, 完全한 全體的 知識을 얻는데 있다고 한다면 特殊科學은 한 實在에 關한 部分的인 知識을 얻는데 있다.

아무리 單純한 實在의 局面이라도 그 自體만으로 自存하지는 못한다. 各 局面은 創造者의 뜻을 따라 그 自體 以外의 다른 局面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또한 不可分離의 永續的인 關係인 것이다. 그러므로 世界라는 하나의 結合體 안에는 아무 것도 獨自的으로 自存하지는 못한다. 이것이 바로 科學은 반드시 哲學的 根據를 가져야 한다는 理由인 것이다. 個個의 特殊 科學은 試驗을 하는 局面과 試驗하지 않고 남아 있는 局面과의 關係에 對한 注意 깊고도 組織的인 考察을 必要로 한다. 그러므로 哲學은 다른 科學의 필수적인 基礎가 되며 모든 科學은 意識的이든 無意識的이든 어떤 哲學的 假定을 基礎로 하고 있다. 따라서 哲學은 部分的이 아니라 全體的으로 宇宙와 關聯되어 있다.

또한 哲學은 理論的인 思考의 한 分野로써 素朴한 日常的 思考를 豊饒케 하며 深刻하게 한다.

그러나, 어떤 科學者들은 그들이 應當 取扱해야 할 窮極的 疑問을 提出하지 않는다. 더구나 어떤 自然科學者들은 自己들 自己의 特殊한 分野에 從事하고 있으면서도 自然 自體가 어떻게 存在하게 되었는가에 對해서는 關心조차 갖지 않는 同時에 그들은 自然의 起源, 意味, 目的 등에 對해서도 關心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哲學者는 그와 같은 疑問들에 關心을 가져야 한다. 왜냐 하면 哲

- 1) 단지 地球上의 實在만이 科學의 探究의 對象이 될 수 있으며, 하늘과 지옥에 관한 우리의 知識은 聖書에 나타난 神的 啓示와 그에 對한 信仰에 全的으로 依存하고 있다.



學者는 그의 思考를 科學的으로 實在의 全體性에 集中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實在의 各異한 局面들과 全體宇宙는 獨立的으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根源을 指向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課業을 完全히 成就하려고 하는 哲學은 그 性格上 指向性이 있어야 하며, 被造物의 窮極的 目的과 根源이신 하나님을 指向해야 한다. 그러므로 眞正한 哲學은 基督教 哲學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萬物은 하나님으로 부터 나오며, 또한 그를 通해서만 存在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哲學은 現宇宙 全體를 살피는 科學的 思考란 意味에서 宇宙는 그 根源에 關한 問題가 直接 관찰되어야 한다.

## Ⅱ. 哲學과 宗教

哲學과 宗教의 關係는 어떤한가? 만일 哲學이 모든 科學의 基礎的 科學으로서의 意味를 가지려면, 哲學은 包論 단순한 趣味나 오락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哲學者는 그의 神的 召命을 充分히 認識하고 일을 해야 하며, 哲學은 하나님께서 그의 言約 關係로 人間에게 맡겨준 課業에 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哲學은 하나님이 人間에게 주셨고, 한 번도 폐기한 적이 없는 文明的 使命의 一部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生活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쳐야 한다.

하나님은 人間과 더불어 그의 言約을 約定하시고, 人間이 遂行해야 할 義務를 指示함으로써 그 義務를 遂行케 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人間을 부르신 것도 이 課業을 遂行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첫 言約의 代表者 아담에 있어서 人間은 벌써 하나님에 對한 순종을 廢棄하여 버렸다. 그 結果로 훌륭한 言約의 約束을 상실하고 詛呪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恩惠로써 그의 言約을 다시 세우시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通하여 그의 훌륭한 言約의 約束을 다시 회복시킨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順從함으로써 言約의 詛呪를 친히 받으시고 그의



教會를 지옥의 刑罰로 부터 救援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原則上 人間은 全心を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教會안에 다시 세우셨던 것이다.

人間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言約을 지켜야만 하는데, 그 言約은 人間の 모든 生活 즉 全人的 關係와 活動을 包括한다. 그러므로 聖經에는 우리의 靈魂만 이 救援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事實을 強調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言約에 屬한 救援은 信者의 靈의 核일 뿐만 아니라, 그의 全自我(Full-Self)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心靈과 生活, 우리의 靈과 肉, 우리가 所有하고 行하는 모든 것은 다 言約에 屬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所望이나 目標와 過去, 現在, 未來의 모든 事實이 다 言約에 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信仰을 通하여 人間の 全生活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쳐지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宗教라 부른다. 왜냐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의 職業이 무엇이든지 相關할 것 없이 人間은 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서재에서 研究하는 牧師나 研究室에서 研究하는 自然 科學者와 꼭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처럼 事務員이나 主婦의 경우도 科學者와 꼭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와 같이 그 어느 것도 宗教에서 分離될 수 없는 同時에 宗教란 全心を 다 바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생각하든지, 기도하든지, 웃든지, 상품을 賣買하든지, 책을 읽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活動은 우리들의 宗教 生活의 一部인 同時에 그 性格上으로도 宗教的인 것이다.

그러나 宗教는 禮拜와는 區別된다. 宗教는 우리들의 全生을 包括하지만 禮拜는 宗教의 한 작은 部分일 뿐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教會 禮拜에 參席할 때, 或은 聖禮를 行할 때는 實際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는 禮拜란 좁은 領域 밖에도 神의 召命이 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써 오직 主를 위하여 우리의 課業을 遂行하여야 하며 言約을 따라 生活하며 아무 것도 하





나눔으로 부터 分離시키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명에와 영광을 이룩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러므로 信者의 全生은 宗教的이다. 기도가 勞動보다 경건하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禮拜가 科學에 從事하는 일 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다고도 하기 어렵다. 하나님은 그의 言約을 通하여 그의 百姓들이 祈禱하고 인하기를 要求하신다. 이와 같이 人間은 科學的 活動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科學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課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科學의 한 分野로서의 哲學은 하나님이 人間에게 준 課業에 包含된다. 哲學은 宗教에 屬하는 동시에 主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屬한다. 그러나 哲學이 聖殿이나 寺院(A Shrine or a temple)을 뜻하지는 않는다. 왜냐 하면, 哲學이 禮拜를 代身할 수 없기 때문이다. 非基督教 科學者들은 종종 禮拜와 哲學을 混沌하여 哲學의 寺院에서 主觀的 理性的 偶像 앞에 敬拜를 드린다. 哲學은 하나님께 對한 禮拜는 아니다. 哲學은 宗教의 一部分인 同時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밖에 다른 神들을 對敵케 하기 위한 地上的 召命의 一部인 것이다. 그러므로 哲學에는 恒常 거짓 神들과의 싸움, 어둠의 나라와의 對敵, 그리스도의 宇宙的 主權을 認定치 않는 背教的인 모든 科學的 思想 等과의 갈등이 있다. 하나님을 是認하는 哲學은 言約의 無限한 祝福을 확신할 수 있으며 科學의 分野에서까지 이 言約을 지킬 수 있는 者들은 聖靈의 照明과 指示로 有益을 보게 된다.

### Ⅲ. 哲學과 一般 信者

哲學이 一般 信者에게 무슨 關係가 있을까? 더구나 科學的 訓練도 받지 못한 淳朴한 信者들에게 哲學이 흥미있기는 커녕 무슨 利害 相關이 있을까? 이와 같이 哲學은 보통 사람에게는 너무나 높은 知識으로 自處하고 있다. 왜냐 하면 一般 大衆들은 學者들이 自己들 보다 훨씬 越等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며, 심지어 信者들까지도 이러한 그릇된 認識을 한다는 것은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科學에 從事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 보다 越等하다고 뽑내는 것은 科學을 神格化하는 結果이다. 이와 같은 科學의 神格化는 하나님이 啓示하신 말씀의 빛 보다 人間理性的인 잘못된 빛에 依存해서 산다는 뜻이며, 科學만으로 自足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思想은 19세기에 일어난 것인데, 科學하는 사람, 特히 哲學者는 一般 사람들 보다 높임을 받았으며, 큰 尊敬을 받았을 뿐 아니라, 科學하는 사람들의 말은 法처럼 認定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들은 科學하는 사람들의 일에 關與할 수도 없었으며, 그들은 다만 科學과 哲學의 높은 領域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祝福에 만족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淳朴한 信者들은 基督教 科學과 實際로 어떠한 關係가 있을까? 聖經에는 모든 것은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고 表現되어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敬虔的인 言辭로 制限시켜 無力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보다 具體的인 意味로 理解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點에서 우리들은 教會가 基督教 科學과 哲學에 實際로 關聯이 있다는 結論을 내릴 수 있다. 하나님의 百姓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屬한 모든 것과 主님이 섬기움을 받을 수 있는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救贖되고 새로워진 모든 것에도 關聯이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科學 分野에 있어서도 主權的인 이시다. 왜냐 하면 그리스도는 宇宙的인 王權을 가지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基督教 科學은 하나님이 주신 課業으로서 그 成就是 하나님 나라를 봉사하고 發展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科學的인 課業은 모든 人間에게 共通的으로 부여된 것이지, 소수의 學者들에게 隔離된 것은 아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온 教會 곧 原則上 새 사람된 하나님의 온 百姓들은 科學 活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告白하고 그의 偉大性을 宣揚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分明히 알아야 한다.

그러나 信者마다 實際로 科學的인 活動이나 哲學에 從事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일의 分配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信者된 者는 누구나 하나님의 榮譽과 關聯되는 事



業에 對해서는 無關心할 수 없다. 그러므로 基督教人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存在요, 하나님의 榮光을 위해서 있는 存在란 것을 銘心해야 한다. 半世紀前에 벌써 基督教 綜合大學校를 設立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했던 荷蘭의 基督 信者들은 바로 이와 같은 目的으로 大學校를 設立하는데 成功하였던 것이다”.

이 事實을 理解하게 될 때 哲學과 一般 信者間의 相互 關聯性을 說明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哲學者로 부름을 받은 者는 極히 적은 數에 不遇하다. 그러나 그들이 어떠한 面에서도 一般 信者들 보다 優越하다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科學的 活動 亦是 商業이나 工業, 農業 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는 볼 수 있는 것이다. 大部分의 사람들이 科學에 從事하도록 부름을 받지는 않았지만 基督教 科學發展에 參與 關心을 갖도록 부름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만 하는데 “당신의 나라이 임하옵시며”하는 기도가 바로 實際的인 기도인 것이다.

基督教 科學과 哲學은 모든 信者生活의 結實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科學的 訓練이 되어 있지 못한 者들을 包含한 하나님의 모든 百姓들은 基督教 科學의 結果를 理解하여야 한다. 이 理解를 通해서 그들은 日常 經驗 世界의 相互 關係를 보다 正確히 관찰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 基督教 科學은 하나님의 百姓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일의 豐饒함과 자기들이 表現하는 智慧의 奧妙함을 感知할 수 있게 한다. 또한 基督教 科學과 基督教 哲學의 知識은 하나님의 百姓들이 世上에 屬한 모든 活動을 警戒하는 일과 被造界의 한 局面을 계속적으로 神格化하는 活動을 警戒하는 일에 도움을 준다. 만일 그들이 非基督教나 反基督教 系統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勢力을 통찰할 수 있게 된다면 쉽사리 거짓 靈들에 依해서 脫線하지도 않을 것이며, 基督教의 活動의 올바른

- 2)- 著者는 Dr. Abraham Kuyper가 1880년에 세운 Amsterdam의 自由 大學校를 言及하고 있다. 이 大學校는 모든 科學分野에 걸쳐 基督教의 立場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길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三位一體 하나님에게 榮光을 돌릴 수 있는 길을 걸어 가게 될 것이다.

#### IV. 哲學과 聖經

基督教 哲學은 聖經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一名 聖經的 哲學이라고도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聖經이 人間 生活 全面에 權威를 갖고 있다는 이 眞理의 말씀을 칼빈(John Calvin)에게서 배워 잘 알고 있다. 칼빈은 分明히 가르치기를 生活의 단 한 局面도 하나님의 말씀의 權威로 부터 除去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眞理는 비단 生活 뿐 아니라 哲學에도 適用이 된다. 改革主義 哲學(Reformed Philosophy)은 聖經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認識에서 出發한다. 다시 말하면 聖經은 眞理의 神的 傳達(A Divine Communication of Truth)인 것이다. 만일 이 事實을 否認한다면 우리의 터전은 흔들리고 만다. 그러므로 哲學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思考하여야 하며, 결코 예사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哲學은 어떤 方法으로 聖經을 思考할 것인가? 聖經的 哲學은 이런 저런 論爭을 支持할 目的으로 되는데로 聖經 句節을 引用하는 것과는 달라야 한다. 내비게이터(Navigator)式 성경 귀절의 引用은 어떤 命題에 對하여 聖經的 性格을 提供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聖經은 哲學의 教科書도 아니며, 어떤 다른 科學의 教科書를 위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聖經은 하나님의 恩惠에 關한 啓示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啓示는 言約의 하나님이 人間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人間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科學은 人間活動의 產物이기 때문에 그릇될 수도 있고 過誤를 犯할 수도 있다. 哲學과 科學은 聖經 以外에도 關心을 기울여야 한다. 哲學的 體系는 聖經만으로 構成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一般的으로 改革主義 系統에서도 認定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종종 無視를 당해 왔다. 왜냐 하면 한 편으



로 宗教 心理學(聖經 心理學)과 宗教 人類學의 그 資料를 全的으로 聖經에서만 찾으려고 試圖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課業을 科學的으로 考察해야 한다. 우리는 被造된 모든 實在을 깊이 觀察하고 熟考함으로써 우리의 注意를 宇宙 그 自體에 集中시켜야 한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智慧가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宇宙에 關한 우리의 觀察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써 그 原理를 찾을 때만이 정확할 수 있다. “당신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以上과 같은 概念을 通해서 볼 때, 基督教 哲學은 聖經을 參考해야 한다는 結論을 내릴 수 있다. 볼렌호벤(Volenhoven) 博士는 그의 有名한 著書 “칼빈주의와 哲學의 改革”(Calvinisme en de Reformatie van de Wijsbegeerte)이란 책에서 基督教 哲學을 위한 重要한 聖經的 原理를 열거하고 있다. 그 중에도 萬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直接的 主權이 그 첫째 原理일 것이다. 둘째 原理는 하나님과 人間 사이에 맺어진 誓約的 關係에서만 참된 宗教가 可能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聖經이 말하는 셋째 原理는 타락은 곧 人間의 마음을 부패시켰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罪 많은 人間에게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通하지 않고는 人間의 마음은 死亡에서 救出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哲學과 聖經과의 關係를 充分히 理解하였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科學的으로 訓練된 많은 基督信者들 까지도 종종 참된 基督教 哲學의 必要性을 看過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리는 종종 다음과 같은 質問들을 받게 된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記錄된 聖經은 全 被造 實在의 비존을 주고 없는데 또 무슨 哲學의 餘白이 必要하겠는가? 더구나 哲學은 종종 禮拜를 代身하고 聖經을 代身하여 왔는데 그와 같은 哲學이 무슨 必要가 있을까? 또한 改革主義 哲學者들은 哲學의 目的이 宇宙의 多樣性和 全體性을 反映하는데 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問題는 神學이 解決해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結



果的으로 基督教 哲學은 用語만 다를 뿐이지 또 하나의 組織 神學을 構成하려고 한 것에 不過하지 않는가? 이런 問題의 解答은 全 世紀를 通하여 基督教 思想家들이 基督教的 體系的 哲學이 必要하다고 느껴 왔다는 사실 만으로는 充分치 못하다. 유능한 神學者들 까지도 그들의 哲學을 發展시키려고 努力하여 왔는데 特히 有名한 荷蘭의 神學者 바빙크(Herman Bavinck)는 그의 “改革主義 教義學”(Gereformeerd Dogmatiek)에 이어서 “啓示 哲學”(Philosophy of Revelaton)이란 책을 著述하게 되었다.

아브리함 카이퍼(Abraham Kuyper)박사의 다음과 같은 陳述은 이런 點에 더욱 關心을 갖게 한다. 그의 말에 依하면, “所謂 神學者들이 말하는 基督教 哲學은 엄밀한 意味에서 神學者들로 하여금 哲學을 敵對視하는 現象을 가져 오게 하였으며, 그들은 자기들 固有의 哲學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恒常 그 밖의 모든 哲學과 論爭을 거듭하여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基督教界에서 까지 어떤 宇宙論的 觀念이 없이 산다는 것은 不可能하기 때문에 그들은 自己들의 組織 神學에 哲學이 加味된 神學을 첨부하여 그 缺陷을 補充했던 것이다. 이러한 歪曲된 關係는 哲學의 課業이 神學의 課業과는 完全히 區別된다는 점과 基督教 哲學 亦是, 非基督教 哲學과는 현저한 差異가 있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認識할 때만이 解消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

聖經은 어떠한 特殊 科學도 不必要하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基督教 哲學도 無用한 것으로 看做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그 自體가 곧 科學은 아니지만 그 말씀은 모든 科學 위에 位置하며, 眞理를 찾는 모든 科學의 規範이 된다. 그러므로 聖經은 우리들이 科學的 思考를 引導해야 할 神的 案内者인 것이다. 하여튼 이 案内者는 科學的 活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要求하며 나아가서는 科學的 活動을 創造한다. 이와 같이 聖經에 記錄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偉대한 創造 課業을 科學的으로 考察한 責任을 우리에게 부여한다. 그러나 基督教 哲學의 모든 成果가 聖經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哲學的인 問題를 풀기 위해서는 慎重한 知的 苦闘과 研究가 要求된다. 하나님께서는 哲學과 科學에 從事할 그의 子女를 부르시며 그의 말씀의 引導를 받는다고 認定할 수 있는 哲學과 科學을 통해서 榮光을 받으신다. 이런 點에서 볼 때 基督教 哲學은 마치 정원사에게 必要한 흙손과 軍人에게 필요한 劊의 役割을 해야 한다. 왜냐 하면 흙손은 하나님의 智慧에 屬하는 科學的 考察을 통하여 하나님의 創造 課業 속에서 보다 明確한 結論을 얻는데 使用되는 동시에 被造된 實在에 關한 眞理를 보다 광범하게 理解하는 데 使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劊을 使用하는 理由는 科學의 道具로 무장된 世上의 靈이 날로 強化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教會를 공격하는 것을 무찌르기 위함이며, 世上의 靈이 犯한 虛偽의 事實을 公開하기 위함이다.

組織 神學은 神學의 特殊 分科의 一部이기 때문에 결코 基督教 哲學을 代身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組織 神學의 課業은 教會에 關한 教理를 科學的으로 體系化하는 일이며, 教會 教理에 對한 信仰 告白과 信條를 反映하는 일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課業은 教會를 통해서 理解된 하나님의 啓示된 眞理를 科學的으로 排列하는 일이다. 組織 神學者는 哲學의 課業을 제대로 遂行할 수도 없으며, 被造된 宇宙의 探究에 從事할 수도 없다. 왜냐 하면, 組織 神學者는 科學과 哲學의 課業에 從事할 資格이 없는 동시에 教會의 教理는 聖經에 啓示된 神的 眞理에 根據되어 있기 때문이다. 科學은 다른 科學과 相互 關聯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組織 神學과 哲學의 研究分野는 서로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이 哲學이 곧 神學이 아닌 것처럼 神學이 哲學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完全히 聖經的인 基督教 哲學은 教會의 信仰 告白을 考慮해야 하는 反面에 科學的인 勞苦에 關心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組織 神學者는 組織 神學의 假定을 異教 哲學에서 誘導할 것이 아니라, 基督教 哲學에서 誘導하는 것만이 效果的인 組織 神學의 研究인 것이다.



## V. 哲學과 日常 經驗

日常 經驗(Naive experience)이란 말은 一般的으로 우리들이 여러사람들과 交際하는 일이나 우리들의 주위를 둘러 싸고 있는 植 같은 사물들의 多樣性을 觀察하는 일과 같은 日常生活에서 具體物的인 實在을 얻는 經驗과 對照되는 말이다. 우리들은 日常 經驗 속에서 具體的 實在에 關한 素朴한 見解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면 사람이 動物이나 植物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가 하면 우리들의 家庭生活이 教會生活과도 다른 것을 알 수 있으며, 國家는 教會 보다도 훨씬 다른 機能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우리는 日常 經驗에서 實在의 豐富性和 多樣性을 經驗하며, 宇宙의 모든 事物은 하나님에 지으신 莊嚴한 全體性에 結束되어 있다는 關聯性和 緊密性을 經驗한다. 그리고 단 하나의 事物이라도 이러한 統一體와 獨立的으로 存在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 하면, 아무런 것도 自存할 수 없는 동시에 하나님의 創造는 우리 人間까지도 包含하는 全體的 創造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基督教 哲學은 日常 經驗과 어떤 關係를 맺고 있는지? 基督教 哲學은 結局 日常 經驗을 否認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基督教 哲學이 日常 經驗을 補充하는 것에 不遇한 것인지 詳細히 考察해 보기로 한다. 一般的으로 非基督教 哲學은 哲學과 日常 經驗이 서로 相反된 것으로 보고 있다. 日常 經驗만을 爲主로 하고 사는 一般 大衆은 幻想의 世界에서 살고 있으며, 實在도 자기들이 직접 보고 體驗한 것으로만 믿는다. 그러므로, 大部分의 사람들은 決코 참된 實在을 發見할 수도 없으며, 더구나 그것의 本質에 對해서는 無關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자기들은 참된 實在의 것이라고 하지만, 實은 虛構的인 世界를 享有하는 것으로 滿足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哲學者는 모든 것을 더 잘 아는바 있다. 다시 말하면 哲學者는 걸 모양을 볼 줄 아는 데서 世界의 本質을 알게 된다. 또한 哲學者는 眞理를 아는 동시





에 幻視와 外觀과 虛構로부터 참된 實在을 區別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순수한 實在觀은 哲學的인 洞察에서 오는 것이며, 哲學者에게는 어떠한 神秘的인 것도 있을 수 없다. 왜냐 하면 哲學者는 實在을 自律的인 理性으로 統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啓蒙哲學者는 마치 築臺위에 높이 올라서서 大衆을 내리다 보듯이 哲學者는 無限한 限界를 두고 大衆과 疎外된 것으로 본다.

以上과 같이 非基督敎 哲學은 日常生活에 對해서는 마치 異邦人과 같아서 日常生活을 引導하고 指導할 能力이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칸트(Immanuel Kant)의 有名한 體系는 우리들의 日常 經驗에 矛盾되는 哲學의 한 例이다. 칸트는 우리들의 생각 밖에 또 무엇이 실제로 存在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未解決의 問題라고 생각하며, 그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意識밖에 있는 實在 即 物 그 自體(das Ding an sich)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칸트에 依하면 哲學者의 課業은 우리가 日常 經驗하는 實在을 하나의 無秩序한 現象들로 粉碎한 다음에 그 粉碎된 現象에서 다시 理論的으로 實在世界를 造成하는 일이라고 한다. 이 課業에 있어서 哲學者는 直觀 樣式(時間과 空間)과 理性 樣式, 原因과 結果, 單一性和 多樣性, 必然과 實在 等の 範疇에 依하여 도움을 받게 된다.

칸트의 이런 概念에 依하면, “純粹한” 知識은 自然과 可視的 實在에 關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고 하며 그 以上の 知識은 加何한 것도 얻어질 수 없다고 한다. 예를 들면, 科學的 確實性은 神의 存在에 關해서 아무 것도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人間이 結論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神은 人間 自身の 道德的 人格에 存在한다는 것이며, 이 道德的 人格은 地上에서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德行과 幸福間의 調和를 來世에 있어서는 “最高 存在者”(Supreme Being)가 成就하기를 願한다는 것이다. 칸트는 聖經의 引導를 받지도 않고, 오히려 自己 自身の 神을 만들었는데 그의 神은 主權的 人間의 노예로서 人間의 永遠한 幸福을 얻기 위해서 協力해야 할 神이라고 볼 수 있다. 칸트의 主張을



보면 마치 日常 經驗이 第二의 哲學的 洞察에 屬하는 實在界의 洞察을 할 수 없듯이 哲學者는 日常 經驗의 具體的인 世界에 살고 있는 一般 大衆과는 전혀 다른 世界에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基督教 哲學者에게는 哲學과 日常 經驗間의 矛盾이 介在하지 않는다. 哲學은 오히려 日常 經驗을 補完한다. 그리고 基督教 哲學者는 大衆을 輕視하지도 않는다. 哲學的 訓練이 없는 基督者도 別個의 世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人間은 동일한 世界에 살고 있으며, 各 個人은 人間으로서 成就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課業이 있다는 것을 認識해야 한다.

哲學은 日常 經驗과 聯合하여 우리들이 日常生活에서 經驗하는 具體的 實在에 關心을 集中시킨다. 日常 經驗에서 直接 觀察된 多樣한 局面들과 緊密性은 哲學에서는 科學的 分析에 屬한다. 日常 經驗에 있어서 空間的, 有機的, 物理的, 心理的, 論理的, 美的, 實在의 各異한 局面들은 全體적으로 感知되고 分別될 수 있는 性質의 것이다. 그러나 哲學的인 見地에서 보면, 이들은 서로 分離되어 있으며, 對蹠的 關係로 놓여 있는가 하던 組織적으로 考察되어 질 性質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日常 經驗에 使用된 모든 事物과 個體의 構造를 理解하기 위해서는 對蹠的 思考와 分析的 思考로써 科學적으로 檢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우리들은 科學과 日常 經驗間의 矛盾을 消滅시키게 된다. 그러나 우리들은 哲學이 實在의 本質을 指示하는 동시에 眞理의 世界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와 反面에 日常 經驗은 外形과 虛構의 世界에 居한다는 主張은 認定치 못한다.

그러므로 被造된 宇宙에 關한 科學的 見解가 日常 經驗의 素朴한 見解보다 優越하다는 것은 아니다. 事實上 哲學은 日常 經驗에 基礎하고 있기 때문이며, 따지고 보면 哲學神도 보통 人間에 不遇한 것이다. 哲學者 역시 다른 사람들과 같은 生活을 하고 있는 것이지 寢食하는 일까지 哲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哲學者와 보통 人間과의 差異點이란 哲學者는 被造物을 그 根源 되신 하나님과의 關係에 反映시키므로써 世界를 哲學적으로 考察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데 있다. 그러므로, 日常經驗과 科學的 分析間의 區分은 前者가 經驗 自體를 實在안 에 局限시키는 反面에 後者는 實在의 한 局面을 抽象化시키므로써 어떤 特殊局面이 科學的 分析에 나타난 對蹠的 關係에서 實在을 찾으려는데 있다.

## Ⅵ. 哲學의 出發點과 그 方向

哲學은 全宇宙에 對한 科學的 反映이다. 哲學도 被造界에 屬한 하나의 學問이기 때문에 그 自體에 對해서 깊은 反省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哲學的 思考는 反省的이어야 하며 批判的 自我分析에 있어서는 問題點에 解答을 주어야 한다. 그러면 哲學的 活動의 出發點과 그 方向은 어떠한 것일까? 다시 말하면 宇宙의 모든 多樣성과 緊密성에 있어서 宇宙의 全體의 비존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固定된 地點을 哲學者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 出發點에 關한 問題는 科學的 方法의 問題는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哲學的 探究를 始作하는 곳은 벌써 第二次的인 것에 不遇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먼저 科學者의 科學以前의 假定들을 다루는 基本的인 問題를 取扱하려고 한다. 哲學者의 觀察은 참된 것이지 先驗的 構造가 아니라는 確實性으로서의 全體 宇宙觀을 얻기 위해서 哲學者가 설 수 있는 바로 그 點을 우리들은 알고자 한다.

그러면 哲學이란 어떤 中立的 根本에서 由來된 것인가? 自我充足的인 科學的 思考에서 起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中立의 일 수 없는 人間 實在의 宗教的 깊이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 문제에 關해서도 웨벨트(Dooyeweerd) 박사는 소위 알키메데스 點(Archimedean point)이라고 부르는 哲學의 出發點은 우리들의 宗教的 深淵에서 由來하는 것이라고 한다. 風景에 關한 正確한 觀察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많은 돌판과 그 돌판을 이루고 있는 草原을 觀察할 수 있는 높은 塔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된



다. 만일 그런 視野를 얻지 못한다면 그 들판의 정확한 位置라든가 相互 關係에 對한 知覺作用은 偏見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을 떠나서 이 位置를 점령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出發點은 우리 自身과 分離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出發點은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從事할 수 있는 哲學의 出發點이 되어야 한다. 알키메데스 點은 宇宙에 있는 多樣性을 超越함으로써 그 多樣性을 完全히 凝視할 수 있어야 한다. 地面보다 낮은 곳에서 있는 사람이 外界의 風景을 잘 觀察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알키메데스 點은 人間의 마음이나 靈魂에서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聖經은 말하기를 生命의 根源은 마음으로 부터 나온다고 한다. 마음은 全人的 實在의 焦點인 동시에 宗教的 根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行爲나 思想, 感情, 欲望들도 다 마음에서부터 發生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장 深刻하고 窮極的인 問題에 對한 解答도 우리들의 마음이 주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關係도 이 마음에서 決定되는 것이다. 더구나 聖靈으로 말미암아 重生된 새 마음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게 하며, 하나님을 無視하는 背敎의 길에서 돌이키게 한다.

그러나 人間의 마음이나 靈魂은 感情이나 信仰과 같은 우리들의 生動的인 機能과는 결코 同一視 될 수 없는 것이다.

마음은 加何한 生動的인 機能보다도 더 深遠한 것이며, 現世를 超越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人間이 하나님과의 關係를 決定하는 中心點이 된다. 마음은 科學的 概念으로 定義될 수 있

3) 마음(heart)이란 말은 聖經에 여러 가지 뜻으로 使用되었다. 如字的인 뜻(身體의 器官)과 "바다의 마음"(the heart of the sea)과 같은 表現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비유적 意味에 첨부하여 "마음"이란 말은 아래와 같은 뜻으로도 使用되고 있다.

- ① 人間의 가장 內面的 實在로서 外部的 實在인 옷이나 말과 같은 뜻과 對照된다(요엘 2:13, 렘 29:13) .
- ② 人間生命의 根源(렘 4:18)
- ③ 우리들의 思考의 背景(출 28:10)



는 性質의 것이 아니다.

왜냐 하면, 마음은 全人間 實存의 中心으로서 人間思考의 가장 深遠한 假定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信仰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生命의 中心에 關하여 啓示하신 바를 되풀이 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人間의 마음은 결코 中立的인 수 없다. 人間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敵對視할 뿐이며, 重生되지 않으면 背教狀態로 머무를 뿐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새로 教贖된 人性에 屬하는지, 그렇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形像을 상실하고 타락한 人間들의 世界에 屬할 뿐이다.

그러므로 基督教 哲學의 出發點은 信者의 重生된 마음에 있다. 이 마음을 通하여 信者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啓示에 參與하게 된다. 이와 같이 基督 信者는 그의 生命의 中心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結束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全生活의 中心的 位置를 차지하며, 그의 科學的 活動까지 支配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야만 科學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王國을 發展시킬 수도 있다. 알키메데스點(Archimedean Point)의 選擇은 결코 어떤 理論的 行爲가 아니다. 그것은 科學을 凌駕하며 모든 科學的 活動에 先行한다. 이 알키메데스點은 發端부터 하나님에 對한 우리들의 哲學的 關係를 決定하는 位置의 選擇, 다시 말하면 宗教的 行爲인 것이다. 이러한 出發點 때문에 哲學은 宗教에 根據하게 되며, 全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基礎하게 된다. 그러므로 哲學은 神學이나 그 밖에 다른 어떤 特殊科學에 根據하는 學問도 아니며, 至高의 理論的 思考에 依存하는 것도 아니다. 哲學은 다만 宗教에 依存하며 宗教는 또한 人間

- ④ 모든 智慧와 理性의 背景(시 90:12)
- ⑤ 우리들의 言行的 背景(마 12:34, 15:19)
- ⑥ 우리들의 情緒生活의 背景(잠 15:13)
- ⑦ 罪의 根據(창 8:21)
- ⑧ 우리들의 現世의 全實在의 가장 深遠한 中心이며, 그 속에서 聖靈의 새육계 하는 役者가 信者에게 일어난다(시 51:12).

마음이란 말의 이러한 多樣한 뜻은 生命의 根源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聖經의 教理를 例證하고 있다(시 51:12).





의 全生活에 連結된다. 以上과 같은 內容은 비단 基督教 哲學에만 適用될 것이 아니라 非基督教 哲學에도 同等하게 適用된다. 非基督教 哲學의 出發點도 역시 마음에 있으나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께 참여하지 않는 마음일 뿐이다. 非基督教 哲學의 出發點은 不信仰으로 말미암은 靈魂이 그 自身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啓示로 부터 斷絶시킨 狀態에 있으며, 結果的으로는 背教의 狀態에 있다. 그러므로 背教의 마음으로 被造된 어떠한 局面을 神格化하는데서 休息과 安全을 찾으려고 努力한다. 그러나 異常한 것은 非基督教 哲學은 그 哲學의 宗教的 出發點을 拒否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화란의 도베멘트 박사는 非基督教 哲學이 스스로 批判的이라고 自負하지만 그 宗教的 出發點을 拒否함으로써 오히려 無批判的인 性格을 들어내고 있다고 指摘한다. 왜냐 하면, 非基督教 哲學은 哲學의 限界를 正直하게 考察하지 않기 때문에 無批判的이라고 한다.

非基督教 哲學의 體系들이 저마다 다르지만, 그들의 出發點이 純粹한 科學的 思考에 있다는 점에서 意見을 一致하고 있다. 이런 理由로 모든 哲學體系는 哲學者의 人格과 마음에서 떠나 普遍妥當性의 立場에서 客觀性을 主張하게 된다. 그러나 누구든지 宇宙의 全體性에 關한 見解를 얻기 위하여 科學的 思考에 自己立場을 擇하고자 한다면 그의 思考는 먼저 모든 宇宙의 多樣性을 凌駕하여야만 된다. 實在의 어떠한 局面을 높인다는 것은 結局 그 實在을 神格化하는 것에 不過하다. 非基督教 哲學은 被造物의 한 局面을 神格化하는 데서 加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非基督教 哲學은 宇宙 自體에 關한 見解와 創造主와 宇宙와의 關係에 關한 見解를 歪曲함으로써 모든 點에 있어서 眞理를 充分히 획득할 수 없게 되었다. 科學的 思考는 窮極的으로 人間 마음의 行爲인 동시에 背教的 宗教行爲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安息을 求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은 被造된 理性에서 安息을 求하려는 것이며 끝내는 거짓 속에서 끝나고 만다.

宇宙의 多樣性을 超越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包含된 地點



에서 始作하는 모든 哲學을 우리들은 內在哲學(Immenence Philosophy)이라고 부른다. 人間의 理性은 宇宙의 多樣性에 屬하며, 人間은 단지 마음에서만 이 世界의 多樣性을 超越할 수 있다. 그리고 哲學의 참된 알키메데스 點도 이 마음에서만 發見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點에 關하여 도웨벨트는 그의 法理論 全書 (Encyclopaedie der Rechtswetenschap)에서 精巧하게 다루면서 嚴密한 意味에서 哲學의 出發點이 各 個人의 마음 속에 있다고 하는 主張은 옳치 못하다고 한다. 哲學의 出發點은 人間學的인 것에 있을 뿐만 아니라 宇宙論的인 것에 있다. 또한 哲學의 出發點은 人間과 宇宙의 實存이 모든 事物의 永遠한 起源에 集中하는 點이다. 哲學者는 이 出發點에 參與해야 하기 때문에 哲學의 出發點은 人類의 宗教的 共同體에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墮落과 그리스도의 救贖 事業이 있는 後로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對立이 이러한 根本的인 宗教的 共同體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人間 生活 속에는 宗教的 反位가 있다. 한편으로는, 人間 活動이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達成하기 위해서 努力하며, 그리스도의 靈과 하나님의 말씀에 依해서 感動되어 지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背教가 眞理를 模糊하게 한다. 이와 같은 反位の 原理는 人間 努力의 모든 다른 分野에서와 꼭 같이 哲學과 科學에도 現存하고 있다. 非基督教的인 內在 哲學은 그 信奉者들의 反對에도 불구하고 宗教的으로 確定되어 졌다. 그리고 이 宗教的 確定은 本質上 個人的인 것이 아니라 共同的인 것이 아니라 共同的인 것이다.

이제 哲學의 方向에 對해서 좀 더 생각해 본다면 活動하는 사람은 누구나 어떤 目標를 向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無意味한 哲學이 아니라면 역시 어떤 方向 속에서 움직이고 있음이 分明하다. 또한 哲學은 宗教的으로 決定되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人間 마음의 두 가지 狀態에 一致하는 두길 중의 한 길을 따르기 마련이다.

이 두 길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重生되어 하나님



계로 이르든가, 그렇지 않으면 背教에 힘써 하나님으로 부터 떠나 버리든가의 둘 중 하나인 것이다. 基督教 哲學은 意識적으로 全被造物의 根源者이며, 再生者인 그리스도에게로 그 方向을 돌릴 것을 願한다. 殺害된 어린 양은 科學과 哲學의 讚揚과 名譽와 榮光을 받을 資格이 있다. 그리스도는 哲學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에게 讚辭를 돌리도록 한다. 그러므로 哲學은 그 自體를 超越하여 萬物의 根源을 指向해야 한다.

內在 哲學 역시, 그 出發點이 다를 뿐이지 하나의 方向과 目標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버리고, 主權의 人間의 名譽를 追求하는데 있는 것이다. 도웨벨트는 이러한 人本主義的 思考의 姿勢를 “人格의 理想”(The ideal of personality)이라고 부른다. 이 人格의 理想은 르네상스(The Renaissance) 哲學에 잘 表現되어 있다. 원래 哲學은 데갈트, 흄브스 등이 主張한 科學의 理想(The ideal of Science)을 따라서 人間의 主觀을 성취하는 노력을 하여 왔다. 그리하여 人間은 科學萬能으로 世上을 統治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結局 科學의 神格化는 人間의 沒落을 초래시켰고, 人間은 큰 宇宙 가운데 하나의 無意味한 原子에 不適當 存在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참다 못해 칸트는 科學을 可視的 自然의 領域에 限定시켰으며, 人間을 가리켜 道德的 自由의 領域 안에서는 아무런 拘束을 받지 않고 다스려 질 수 있는 存在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人本主義의 見地에서는 “科學의 理想”과 “人格의 理想”간의 충돌이 不斷히 계속될 수 밖에 없으며, 서로 앞을 다룰 뿐이다. 人間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安息을 찾을 때까지는 항상 不安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內的 葛藤을 免할 수가 없는 것이다.

## Ⅵ. 哲學과 實在의 意義—性格

도웨벨트는 “觀念的 思考의 新批評”(A New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sup>4)</sup>이라고 하는 四卷으로 된 그의 著書에서 實在의



意義一性格(Meaning Character)을 強調하고 있다. 被造된 萬物은 다 그 意義를 지니고 있다. 換言하면 被造物은 自我充足인 것이 아니란 말이다. 어떠한 事物도 그 自體를 위해 獨自의으로 存在할 수 있는 것은 없다. 萬物은 다른 事物과 緊密한 關係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實在의 모든 局面은 그 自體를 超越하여 實在의 다른 모든 局面을 指向하게 된다. 被造物은 그 自體안에 아무런 安息處도 갖지 못하며, 그 自體를 超越하여 創造主를 指向할 뿐이다. 하나님은 人間과 人間の 社會的 關係를 包含한 모든 被造物들을 하나님 自身과의 關係와 被造物 相互間的 關係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被造物에 意義를 부여하고 있다. 하나님은 萬物에게 意義를 부여하신 분이지만 그이 자신에게도 意義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唯一하신 自我充足者로서 모든 意義 위에 높이 超越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自存하시는 하나님이며, 오직 그이만이 最高 自存者이다. 그러므로 意義를 가진 萬物은 自體의 運命과 窮極的 目標을 하나님 안에서 發見하게 된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하신 主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아도 分明히 알 수 있는 일이다.

實在의 意義一性格은 實在의 相對的인 것이요, 하나님만이 絕對的이시란 것을 뜻하고 있다. 모든 事物은 相關關係에 놓여 있되 全的으로 創造主 하나님께 關聯되고 依存되어 있으며, 窮極的으로는 創造主의 榮光을 위해 存在하고 있다. 實在의 各 局面 數空間, 運動, 生命, 感情, 思索, 歷史, 言語, 社會, 經濟, 美, 法, 사랑, 信仰은 곧 意義의 局面인 것이다. 感情이나 思考는 물론 그 밖에 어떠한 局面도 그 自身에 依해서 獨存할 수는 없다. 만일 實在가 孤立된다면 實在의 緊密性은 分列되고 단순한 抽象的 概念만 남게 된다. 이렇게 되고 보면 意義 賦與者시며 萬物의 根源과 目的이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게 되며, 하나님의 功德에

4) 英譯版의 이름이며, 荷蘭語 原書는 三卷으로 되어 있으며, 冊名은 “De wijs begeerte der Wetsidee”이다. 本 冊名을 翻譯하면 “法概念哲學”이라고 할 수 있다.



對한 讚揚은 끊어지고 만다.

宇宙의 各局面은 서로 다른 局面들을 指向한다. 모든 局面들은 同時에 創造되었으며, 하나님에 依해서 破損될 수 없는 緊密性에 놓여 있다. 따라서 宇宙의 모든 局面과 部分은 제각기 意義를 갖고 있다. 宇宙全體는 그 自體를 超越하여 하늘과 땅 위의 萬物에 關聯된 예수 그리스도의 完全하고도 全體的인 意義를 指向한다. 한편 그리스도께서는 罪로 말미암아 不完全한 意義로 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完全한 世界를 解放시키기 위해서 積極的으로 役事하고 계신다. 그가 다시 오시는 날이면 萬物은 소생된다. 그러므로 被造物의 意義—性格은 新天新地에서 完全히 實現될 것이다. 三位一體 하나님은 榮光을 받게 될 것이다.

聖經을 아는 이는 누구나 위에서 말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根據하고 있다는 事實이 明白해질 것이다. 그러나 特別히 世界發展의 完全한 意義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事實을 分明히 說明해 주고 있는 것은 使徒 요한이 記錄한 啓示錄 五章의 환상이다. 하나님의 손에는 世上에서 반드시 實現될 하나님의 永遠한 攝理의 책인 인봉된 두루마리가 있다. 그러나 누가 이 책을 펴며 인봉한 것을 떼기에 適合한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攝理의 내용을 具現하기에 合當한 것인지? 하고 天使가 물었을 때에 아무도 對答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통절히 울기 始作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두루마리가 닫힌채로 있다면, 땅위의 生活은 아무 意義도 갖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教會는 장래도 없으며, 世界는 멸망할 것이고 萬物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囚한 永遠한 暗黑 속에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다.

요한은 그리스도 教會의 代表者인 24 장로들 중의 한 사람이, 보좌 가운데 계시며, 그의 教會의 仲保者로서 네 짐승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다윗의 뿌리인 유다 족속의 사자를 提摘할 때까지 울고 있었던 것이다. 이 어린 양은 그 책을 열기 合當한 者다. 그가 이 책을 하나님의 오른 손으로부터 取했을 때





에 장로들은 기쁨의 찬송을 외쳤으며, 지금도 하나님과 어린양을 노래로 찬양하고 있는 天使들과 모든 被造物들에 依해서 聯合되었다.<sup>1)</sup>

그러나 罪는 意義의 妨害者로서 이 世上에 들어 오게 되었다. 罪의 權勢 아래 있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創造主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그의 生命의 方向을 다른 곳으로 전환 시켰으며, 背教의 生活을 통해서 그의 被造物 全體를 自己에게로 끌어 내리려고 한다. 背教의 人間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方法조차 잊어 버렸으며, 被造物 가운데서는 아무런 安息도 찾지 못하고 있다. 一般 恩寵은 罪를 制裁하는 影響力은 있지만 마음을 重生시키는 데는 充分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만일 罪人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重生케 하는 恩惠로 말미암아 悔改하는 法을 배우지 않으며, 하나님에게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는 어둠 가운데서 멸망할 수 밖에 없으며 自己 實存의 참된 意義를 發見하지도 못하게 된다.

하나님은 罪도 그의 永遠한 攝理 속에 包含시켜서 그 罪로 하여금 하나님의 榮光을 위한 課業에 原因이 되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事役의 窮極의 目的을 成就하는데 있어서 二元論이란 介在될 수 없는 法이며, 完全한 意義와 破裂된 意義間的 二元性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 하면 外的 黑暗의 곳, 다시 말하면 黑暗의 中心部가 아닌 곳까지도 비록 消極的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과 義를 永遠토록 讚揚해야 되기 때문이다. 哲學은 實在의 意義와 特性에도 關與되어야 한다. 哲學은 다른 여러 局面엔 無關하고 다만 宇宙의 어떤 特殊한 局面만을 理論的으로 探究하는 特殊科學이 아니기 때문이며, 오히려 哲學은 하나님의 課業에 包含된 意義의 緊密性을 科學的으로 探究하기 위하여 實在의 各 局面을 다른 여러 局面들과의 關係와 全體의 關係에서 考察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된 使命을 意識하고 있는 哲學은 萬物의 出處(Whence)와 歸着點(Where to)에 關한 問題, 다시 말하면 被造物의 起源과 全體性과 完成에 關한 問題에 解答을 준다. 이



러한 문제에 對한 完全한 解答은 철저한 基督教 哲學이어야 한다. 基督教 哲學만이 主님이 우리에게 그의 모든 課業의 意義를 나타내신 神的 啓示의 權威에 屈服될 수 있기 때문이다. “主여, 당신은 榮光과 尊貴와 權威를 받으시기에 合當하시나이다. 당신은 萬物을 創造하셨고 萬物은 당신의 뜻을 따라 있으며, 그 뜻대로 創造되었나이다” 하는 句節에서도 神的 權威에 服從하는 基督教 哲學의 立場을 明白히 알 수 있다.

이러한 窮極的인 問題에 關한 물음과 답변을 通해서 哲學은 그 自體를 止揚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哲學의 宗教的 先驗의 問題인 동시에 根本的 理念의 問題인 것이다. 도웨벨트와 볼렌호벤 박사는 이것을 가리켜 宇宙論的 理念이라고 부른다. 主權的 創造者 하나님은 그의 被造物을 宇宙的 法秩序(Cosmic law order) 속에 두셨으며, 各異한 局面들 間의 緊密性과 實在의 相關性은 이로 말미암아 決定된다.

위에서 말한 두 박사들은 모든 哲學은 어떤 宇宙論的 理念에 根據되어 있다고 主張한다. 모든 哲學은 實在의 起源과 意義의 實現에 關하여 科學以前의 概念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哲學은 宗教的 先驗이 없이는 存在할 수 없는 것이다. 非基督教 哲學이나 內在 哲學은 被造된 宇宙의 한 部分이나 局面을 變更할 수 없을만큼 絕對化하고 神格化한데 不週하다. 이것은 宇宙의 起源과 意義의 實現을 단순히 科學的 思考 自體에서 追求하는 것이다. 이처럼 科學的 思考가 모든 現世의 意義 위에 높임을 받으며, 神的 尊敬을 받게 된다.

科學的 思考의 神格化는 여러 가지 影態로 나타난다. 實在의 自然的 局面들에 從事하고 있는 科學的 思考가 神格化될 때는 언제나(例를 들면, 數, 空間, 運動, 生命), 多角的인 自然主義的 體系가 생긴다. 이것은 모든 局面에 自然科學의 方法을 適用함으로써 實在의 自然的 局面만으로 實在을 說明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實在의 局面을 自然的 局面에 축소시킨 結果가 되었다. 그러나 科學의 神格化가 心理的 局面에 關聯된 思考에 일어



날 때에는 모든 것을 心理學的으로 說明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心理主義가 생기게 된다. 論理的 思考를 神格化한 論理主義나 歷史的 思考를 神格化한 歷史主義도 이와 같은 경우다. 이것 뿐 아니라 서로 相反된 體系들의 目錄까지 羅列할 수 있을 정도지만 이것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며, 結果的으로 우리들은 아래와 같은 聖句를 想起하게 된다, “보라! 그들은 主를 거역하였도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智慧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우리를 自由케 하는 眞理를 얻고자 한다면 哲學은 마땅히 첫 계명을 犯하지 않아야 하며, 거짓 神들을 세우지 않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 Ⅷ. 哲學에 있어서의 反位

우리는 前項에서 內在哲學과 非基督教 哲學을 再三 比較 檢討해 왔다. 根本的 理念에서 볼 때, 非聖經的 哲學은 하나님의 말씀의 眞理를 排斥하며, 따라서 基督教 哲學의 正反位的 位置에 선다. 그러므로 非基督教 哲學의 問題 解釋과 構成이 基督教 哲學에 容納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問題를 取扱해서 結論을 얻는 方法이 이미 觀察된 問題를 너무 광범하게 取扱하기 때문이다. 基督教 哲學者와 非基督教 哲學者 間에는 討議된 問題들의 性格에 關하여 아무런 根本的 合意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非基督教 哲學者에 依해서 提起된 어떤 問題들은 아무런 意義도 없으며 심지어 어떤 것들은 전혀 다른 方法으로 取扱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哲學의 改革은 하나의 繼續的인 過程이며, 그 改革이 完成되려면 우리들은 이러한 反位の 原理를 詳細히 考察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非基督教 哲學的 原理나 動機와 聖經的 原理나 動機와의 어떠한 合位도 피해야 한다. 왜냐 하면 이와 같은 合位는 基督人의 立場을 비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行하는 모든 基督教人에게는 人間性을 區分하는 分界線이 科學의 分野에서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明白해질 것이다. 世上은 信者便(하나님의 都市)과 不信者



便(땅의 나라)으로 나누어 진다. 그러므로 科學은 이 두 反對便에 對해서 中立的일 수는 없다. 科學은 獨自的으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宗教的 背景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科學은 人間의 마음에서 부터 생기며, 모든 人間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擇하든지 對敵하든지 할 뿐이다. 이와 같이 科學은 하나님께로 向하거나 하나님으로 부터 떠날 수 밖에 없다. 科學은 言約에 服從을 履行하든가 全的으로 하나님을 拒否하든가 둘 중의 한 길을 擇할 뿐이지 中間 過程이란 있을 수 없다<sup>5)</sup>.

지금까지 우리들이 科學에 關하여 말해 온 사실은 哲學에도 勿論 適用된다. 만일 哲學이 聖經의 빛을 拒否한다면 哲學의 過程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哲學은 人間 속에서 指導的 빛을 찾으려고 하며 이와 같은 거짓된 빛으로써 가장 根本的 問題들을 解決하려고 한다. 이처럼 內在 哲學이 宇宙의 起源과 本質에 關하여 多樣한 出發點과 各異한 解答들을 가져 온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內在 哲學은 基督教 哲學에 依해서 排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眞理를 否認하는 마음은 眞理를 획득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墮落한 人間은 하나님께 이르지도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어요, 眞理요, 生命인 것이다. 만일 어떤 否定的인 宗教的 選擇 때문에 根本的 問題의 解答에 重大한 過誤를 범한다면 다른 問題를 解答할 경우에도 最初의 過誤 때문에 비참한 영향을 면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基督教 哲學은 모든 合位哲學(all synthesis philosophy)의 妥當性을 根本的으로 否認하며, 內在 哲學의 根本的인 動機와 聖經에서 온 理念들을 융합시키려는 어떠한 企圖도 拒否한다. 이와 같은 合位의 原理는 教會의 發展에 有害하였을 뿐만 아니라 全生活 領域에 걸쳐 基督教人의 發展을 阻止시켰다. 불렌호벤 박사는 그의 著書 “칼빈主義와 哲學의 改革”(Het Calvinisme en de Reformatie der Wijsbegeerte) 페이지 110에서 이

5)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는 두 種類의 科學이 있다는 事實을 強調하였다. 그의 神學辭典(Encyclopaedie der Heilige Godgeleerdheid) 第二部 參照.



와 같은 合位의 原理를 實現하기 위하여 行해진 企圖를 詳細히 다루고 있다.

基督敎 敎會의 初期 數世紀 동안의 辯證學者 가운데는 基督敎의 思考와 非基督敎의 思考間에 合位의 原理를 具現해 보려는 傾向이 있었다. 마터(Justin Martyr), 텀투리안(Tertullian), 그 밖에 몇 사람들은 스토익 哲學에서 이러한 接觸點을 찾으려고 하였으며, 오리겐(Origen), 키프리안(Cyprian), 오거스틴(Augustine)같은 사람들은 新푸라톤 思想과 基督敎의 眞理를 統合하려고 했다. 이와 같은 合位의 原理를 成就하려는 努力은 中世紀 思想에서 더욱 強力히 나타났다. 13세기에 이르기까지 古代 異教 生活의 根本 精神을 敎父들의 生活 精神과 統合시키려는 企圖가 있었는데, 칸타베리의 안셀름(Anselm), 아벨아드(Abelard), 크레브의 벨나드(Bernard)는 이 그루프의 代表者들이다. 볼렌호벤 박사는 14세기 以後의 時代를 合位 哲學의 衰退期라고 한다. 이 時代에 있어서는 哲學은 어디까지나 聖經의 빛에 依해서만 眞理를 發見할 수 있다는 어거스틴의 思想이 廢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中世 思想은 實在論과 反實在論間의 論爭에 있어서 그 絶頂에 到達했다. 이에 關해서는 아퀴나스(Aquinas), 둔스 스코트스(Duns Scotus), 옥캄의 윌리엄(William of Occam)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다. 이 時代에 있어서는 神의 啓示에 關聯된 內的 自我充足性이 哲學에 돌러졌다. 그리하여 啓示는 思索의 領域으로 돌러졌고 哲學은 自然의 領域으로 돌러졌던 것이다. 이러한 方法으로 合位의 原理가 終熄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런 有益을 주지 못한다. 그것은 聖經的 思考間의 合位의 길을 열지 못한 것이 아니라 自然과 恩惠間의 그릇된 區分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基礎한 哲學代身에 聖經의 빛으로 부터 멀리 떠난 哲學 體系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後期 中世 思想이 古代 異教 哲學의 理念에서 影成된 휴우머니즘의 길을 열어 놓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衰退하는 合位 哲學의 時代에도 聖經的 動機와 古代 異教的 動





機間的 統合이 繼續되었으며, 宗教改革 時代에 와서 비로소 基督教 思考와 非基督教 思考間的 융합할 수 없는 反位의 原理가 認定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規範으로 認定하는 者들과 人間 理性의 自律의 教理를 支持하는 者들 間에는 아무런 和解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루터(Luther) 역시 自然과 恩惠間的 中世的 兩分 方法에서 完全히 脫皮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公公然하게 옥캄(Occam)의 立場을 擇하였다(“Ich bin von Occams Schule”). 그러므로 칼빈이 비로소 모든 合位 哲學을 打破하고 모든 科學的 思考를 聖經의 規範에 隸屬시킨 첫 改革者가 되었던 것이다. 그는 어떤 哲學 體系를 發展시킨 사람이라기 보다는 참된 聖經的 哲學의 길을 準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칼빈 以後에도 合位 哲學에 對한 欲望이 基督教 科學의 陣營에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계몽기에 있어서 데갈뜨는 理性을 神格化 하였으며, 그 理性을 어떠한 制限에서도 分離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人間 理性은 하나님의 말씀에 依해서도 制限되지 않으며, 드디어는 人間 自身이 主權者로 認定되었던 것이다. 이와 反面에 어떤 사람은 敬虔主義에서 慰安을 求하였으며, 人間心靈의 個的 敬虔을 信者의 生命의 根源이 되시는 言約의 하나님으로 代置시켰던 것이다.

“애굽의 가축 병”을 貪慾한 結果 중의 하나는 教會의 內的 衰退였다. 화란의 경우도 佛蘭西 革命의 致命的 原理를 그대로 받아 들임으로서 이와 같은 結果가 招來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화란에서는 하나님의 善하심으로 말미암아 基督教 科學의 改革이 지난 世紀 동안 일어났다. 이 改革 運動과 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 카이퍼다. 그는 칼빈으로 돌아가서 칼빈의 精神을 遵守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絕對的 權威 앞에 머리를 숙였기 때문이다. 그는 雄辯의 힘으로 科學의 領域을 包含한 人間 生活의 全領域에 걸쳐 그리스도의 主權을 宣布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카이퍼의 業績은 그의 後繼者들로 하여금 잠시도 放心할 수 없을 만큼 偉大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反位의 鬭爭은 계속 되어



야만 했으며, 오늘날도 合位 哲學의 衝動은 결코 萎縮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칼발트(Karl Barth) 神學의 影響으로 많은 사람들이 魅惑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趨勢는 부흐만(Buchman) 運動과 뢰트링겐(Mottlingen)의 동요들로서 제창되고 있으며, 우리들의 國民生活에 있어서 어떠한 反位의 原理도 거부하는 戰後的 趨勢라고 볼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基督教과 휴머니즘을 소위 人格主義的 社會主義(Personalistic socialism)의 形態로 統合하려는 趨勢인 것이다.

우리들이 모든 合位 哲學을 拒否하고 성경적 哲學과 비성경적 哲學間의 反位의 原理를 強調한 以來 비기독교 思想의 歷史를 研究하는 價値 與否 問題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研究는 몇 가지 理由로 有益한 점도 있다. 이 研究는 우리들에게 哲學的 問題로는 解決치 못할 限界를 가르쳐 주며 現時代의 靈的 運動에 關한 正確한 見解를 가르쳐 준다. 더욱 나아가서 이 研究는 非基督教人들의 하나님을 지으신 世界의 많은 多樣性 속에 실제로 存在한다는 特異性과 緊密性을 發見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認識케 한다. 그러나 非基督教人들은 이런 細密한 具體的 眞理를 잘못된 문제와 不正確한 解釋으로 構成된 보다 더 크고 광범한 關聯 속에 거짓으로 일변시켜 버리는 致命的 過誤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改革派 陣營에서 까지도 概念的 圖式(Conceptua Schema)과 述語(Terms)들이 非基督教 哲學에 起源된 意味 그대로 종종 使用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影相(Form), 質料(matter), 主體(Subject), 客體(object) 같은 것들이다. 이들은 잠재적 위험을 형성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들의 陣營에까지 矛盾과 論爭을 일으킨다. 또한 이와 같은 述語들은 우리들을 어두운 골목으로 誘導하고 二律背反과 不要한 混沌 속에 몰아 넣으므로 改革의 큰 發展을 阻止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哲學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榮光을 박탈하고 만다. 結果的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基礎한 基督教 哲學을 發展시키므로써 모든 內在 哲學을 물리쳐야 하며 聖經的 眞理와 內在 哲學을 종합한 在來的 基督教 哲學도 改革하여야 한다.